

“주주·투자자 배제 영업익 분배, 자본주의 발전방향 역행”

▶ 1면 ‘김정관 “주52시간제…”’서 계속

반도체 수익은 재투자 될 자금
상법·자본시장 개정 관계부처와 협의
호남권 반도체 특구 당위성 설명
쿠광규제엔 “한미 동맹 흔들 수준 아냐”

◆ “반도체 돈 나눠 먹으면 거위 배 가르는 꼴…성과급 주주 승인 의무화 검토”

최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원칙과 재투자자의 중요성을 내세워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전략자산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여기서 버는 돈은 단순히 나눠 먹은 돈이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재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반도체 펩 하나를 짓는 데 150조~200조 원이 들고 호남 메가특구 조성에만 800조 원이 들어간다”며 “돈을 잘 벌 때 수십조 원을 보태 재투자하지 않으면 1~2년 뒤 반도체 주도권은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측면을 짚으며 “회사의 주인은 위험을 감수하는 주주와 투자자인데, 이들이 배제된 채 영업이익을 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누는 구조는 자본주의 발전 방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에 어느 투자자가 들어오겠느냐”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도록 하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중국 반도체 속도전 소름 끼칠 정도…호남 특구는 전력·용수 최적지”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속도전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5년 뒤 1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텐데, 현재의 65% 점유

율을 유지하려 해도 지금의 속도는 늦다”며 “중국이 노광장비 국산화 등 소부장 분야에서 보여주는 속도와 기술력은 소름이 끼칠 정도라 생각보다 초조하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치적 선택에 따른 발표라는 일각의 시각이 존재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대해서는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차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용인 클러스터를 2027년 등으로 최대한 앞당겨 짓는 것이 우선 과제지만, 수도권 전력 및 용수 한계로 용인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호남은 평

평한 평지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한빛원전과 기존 전력망(그리드)이 잘 연결돼 있어 수도권 대비 전력 송배전망 확보에 유연한 최적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AI 시대는 전기를 AI로 바꾸는 시대라 할 만큼 가격과 품질이 뛰어난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약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활용은 불가피하며, 여야 이념을 떠나 국민 삶과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해 원전 정책과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 한미 통상 현안…“美 관세 15% 상한 방어, 쿠광 사태는 동맹 흔들 사안 아냐”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광 규제 논란 등 산적한 대미 현안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강제노동 관세 12.5%는 일본·스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아들였다”며 “향후 남아있는 과잉 생산 분야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국 간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통상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 시기는 당초 미국이 생각한 8월 이내

에서 다소 이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 A)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규제 체계 때문이지 협력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도 중동 정세 등으로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와 상선 건조 수요가 절실해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지난날 개설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쿠광 차별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태의 본질은 한국 성인 80%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사건”이라며 “미국 USTR이나 상무부 등 실무 통상 당국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 정치인들에게도 상황을 적극 설명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 쿠광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기초를 흔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광을 차별해 규제하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제재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고,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내용과 누락된 중요 사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반지 하나로 24시간 혈압관리… K-웨어러블, 美·유럽 공략

스카이랩스 ‘카트 비피 프로’
美 FDA 허가·코스닥 상장 준비

아이센스, CGM 호조에 최대실적
‘케어센스 에어 2’로 매출확대 속도

GC녹십자엠에스 ‘GC Fit’
유럽 CE-IVDR 적합 인증 획득



개인용 혈당정기 ‘GC Fit’. /GC녹십자엠에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술력과 강화된 글로벌 인허가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혈압 모니터링 기기부터 연속혈당측정기(CGM), 진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임상 착수, 규제 기관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기업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혈압계 ‘카트 비피 프로’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스카이랩스는 FDA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제품 성능과 임상적 유효성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이미 확보했음을 확인했다. 향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와 환자 등록을 진행해 2027년 상반기까지 임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카트 비피 프로는 기존 커프형 혈압계와 달리 반지 형태로 착용해 일상 및 수면 중 24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 스카이랩스는 이미 국내외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유럽 의료기기 규정(CE-MDR)

인증,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MHRA) 등록을 마친 상태다.

스카이랩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에서도 기업 가능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스카이랩스 매출은 2023년 약 6억원에서 2024년 약 41억원, 2025년 약 79억원으로 최근 2년 만에 13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한 약 21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 측면에서는 지난해 매출총이익 약 39억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스카이랩스는 코스닥 상장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일정에 돌입했다. 총 200만 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는 1만 3000원~1만 60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 약 260억원~320억원 수준이다.

이병환 스카이랩스 대표는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와 AI 분석 기술을 융합해 일상 속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왔다”며 “이번 상장을 발판 삼아 측정 영역을 본격 확장하고, 신뢰도 높은 데

이터를 생산하는 독보적인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2026년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아이센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885억원, 영업이익은 274.1% 급증한 63억원을 올렸다. 매출 증가와 더불어 CGM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된 성과다. 2분기 CGM 매출은 연결 기준 약 94억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해외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이센스는 최근 독일, 영국, 벨기에 공보 보험 등재를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보험 등재와 차세대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 2’의 인허가 및 글로벌 임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해외 매출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

십자엠에스도 올해 들어 혈당 사업부문에서 신제품 내놓으며 유럽 수출 기반을 다졌다.

차세대 개인용 혈당 측정시스템 ‘GC Fit’이 유럽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CE-IVDR’ 적합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기존 규정 ‘CE-IVDD’ 대비 제품 성능 및 안전성 요건이 대폭 강화된 제도다.

특히 이번 인증은 위험도가 높은 ‘Class-C’ 제품군에 해당함에도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과해 유럽 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GC녹십자엠에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2개월 빠르게 유럽 시장 진출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GC녹십자엠에스는 광학형 해모글로빈(Hb) 측정 제품, 메탈기반 혈당측정시스템 등 제품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산업현장에 AI로봇 年 1000대씩 보급… ‘모두의 성장’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발표
철강 등 주력산업 제조공정 AI 혁신
구윤철, 외신 韓 경제 평가에 반박도

인공지능(AI) 로봇을 연간 1000대씩 산업 현장에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의 AI 경쟁력을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10대 주력산업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



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성과가 민생 전반에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

단했다. 이에 산업구조 혁신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 주력한다.

우선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제조 공정을 AI로 혁신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과 특수탄소강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화학은 사업 재편과 대체 원료 도입, 3대 산단 상생을 병행한다.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과 유니콘 육

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가전·조선에는 산업 특화 휴머노이드와 용접로봇을 개발하고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기술을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는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한국형 자율주행 AI 모델을 개발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온디바이스·AI 데이터센터·국방·전력 반도체를 육성한다.

피지컬 AI 기반 구축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 부품 연구개발(R&D)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 및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건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 등을 지속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